

» 산란일자 난각표기와 계란품질에 대한 소견

계란은 신선도가 중요하다



원 경 환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
이력부장

최 근의 2년간 우리는 안전한 계란 생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대한 응답과 규모화에 따른 과잉생산량을 조절하고 합리적인 계란 가격의 결정체계 구축 등 계란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중대한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최고조의 국민적 관심을 부담스러운 위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산업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동물복지형 생산체계 구축, 가금산물이력제 조기도입, 산란일자 난각표기, 집하장(GP) 유통 의무화, 계란 등급제도 개선, 후장기 균절 등 다양한 정책과 산업체계 개선의견들은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정부와 생산자·유통업자 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시장 상황에서 정부 정책들을 이해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에 대해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판단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현재 이슈가 되는 산란일자 난각표시와 계란 품질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이다. 국민에게 신선식품으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계란을 생산·공급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제고하는 것으로 모든 정책과 주장들의 목적에 해당되고 우리가 양계산업에 종사하는 궁극의 이유이기도 하는 사회적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양계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산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지속적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정책참여자인 생산자·유통업자 관점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주장을 지나도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복지형 농장이든 친환경이든 대형사육시설을 운영하든 자기 선택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계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정책적 관점이다. 정부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산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집행한다. 정부는 농가소득 증대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급조절과 수출 등 소비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산업과 소통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3가지의 관점은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며 현재의 시장상황

에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한 가지라도 소홀해서는 안정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거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산업의 현안들을 바라보고자 한다.

1. 계란은 신선해야 한다

누구나 계란은 신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사료를 급여하든 어떤 환경 속에서 사육되든지 간에 계란은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계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자·유통업자·판매자 등 계란의 취급자는 필요한 시설여건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현실적 노력을 해야 한다.

과거의 사례에서도 계란의 신선도를 도와 시한 산업여건은 여러 부작용으로 시장을 왜곡하곤 했다. 이는 계란을 신선식품으로 인식하지 않음으로 저장·보관 온도 등 취급이 부실해지고, 농산물로 취급되었다. 후장기가 관행화되고 콜드체인시스템 정착되지 못하여 산지유통이 왜곡되고 소비자는 계란의 신선도를 불신하게 되었다. 또한 대규모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집하장(GP)의 기능이 부실해지며 경영여건이 불안정하여 궁극적으로 시장경쟁력이 떨어져 산업체계의 부실화가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지금까지 많은 인식개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계란이 신선식품이라는 확고한 인식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콜드체인시스템의 정착과 후장기 근절 등 산지유통이 개선될 수 있으며, 집하장(GP) 기능 활성화 및 대규모 유통(경매) 등 도매기능 강화와 해외 수출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토대를 쌓아나갈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신선식품으로서의 계란의 품질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이 어떤 정책들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 산란일자 표기가 신선도 판단의 척도가 될까?

계란은 산란 이후부터 신선도가 떨어진다. 언제 산란되었는지를 통해 계란의 신선도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산란일자를 난각에 표시해야 소비자에게 신선한 계란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만간 산란일자 난각표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계란의 신선도를 굳이 산란일자를 통해 구분하여 난각에 표시하는 게 정말로 국민에게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는 불가결한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란일자를 표시하면 신선한 계란이 공급되는

유통체계가 구축되고 친환경,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개선과 집하장(GP) 기능이 활성화되어 도매기능 및 해외 수출 등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면서 계란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계란은 포장유통이 의무화되어 있다. 모든 계란은 포장해서 유통해야 하며 포장지에 생산자, 규격, 포장일자(생산일자) 등을 표시하게 된다. 그런데 이 포장일자(생산일자)가 계란의 신선도를 담보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계란의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척, GP 유통 등 여러 개선방안 중 하나로 산란일자 난각표시가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산란일자로 계란의 신선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해도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며, 산란일과는 상관없이 계란은 보관온도 등 취급상태에 따라 신선도는 오랫동안 유지되기도 하고 쉽게 변할 수 있다. 더불어 언제 산란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계란 신선도를 태생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과학적 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더군다나 난각에 일자를 표시하는 것은 복선적이고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계란 유통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국으로의 수출 등 시장 확장을 저해하여 발전적이지 못하며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등 계란의 신선도 제고를 위한 산업종사자의 노력들을 도외시하며 부정적 인식을 덧씌우는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은 시장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다.

따라서 좀 늦더라도 산란일자 난각표시 보다는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계란의 품질관리를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선행하면서 국민에게 보다 신선한 계란을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듯하다.

계란산업 종사자는 합리적인 품질관리 노력을 통해 신선한 계란을 생산·유통함으로써 생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부는 정책을 통해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등 어떤 형태·규모의 생산농가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 선택적이면서 집하장(GP) 활성화를 통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 통합적 품질관리체계(TQM) 구축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신선식품인 계란의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상황인식과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계란산업 종사자는 당연히 계란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은 산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속에서 해외 수출 등 산업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계란의 등급제도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와 물량에 대해서만 계란의 품질 등급을 판정하고 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전체 생산량의 약 8%정도를 판정하고 있으며 신선 식용란의 경우 약 25%정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를 개선·확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신선계란에 품질등급을 당연히(Should) 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공식적)와 생산농

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등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생산 규모와 유통 형태를 감안하여 생산농가가 자발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농가등록 및 교육과 시장 감시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통합적인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정책판단의 3가지 기준과 산란 일자 난각표시에 대해 살펴봤다. 산업 현장에서 환경의 변화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응대를 통해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 오면서 일종의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지금의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이 우리의 결정이었다. 국가의 정책은 시장환경의 변화 보다 시장참여자의 욕구를 인정한 상태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을 이해하는 섬세한 정책만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문제들의 원인은 그저 산업환경의 변화에 있으며 우리는 이런 환경변화에 다시금 집단지성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다 나은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마중물로 삼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요구된다. **양계**

중추전문농장



구칠농장
대표 : 이승묵

- 15만수 무창계사
- 건강한 병아리 육성
- 밑을 수 있는 사양관리
- 97% 이상 피크 목표
- 85% 이상 균일도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고지1길 131-52
연락처 : 010-5353-1481